

실존적 현상학과 돌봄의 실천

공 병 혜¹

¹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Existential Phenomenology and the Practice of Caring

Kong, Byung Hye¹

¹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주요어

실존적 현상학, 돌봄, 간호, 몸

Key words

Existential phenomenology,
Caring, Nursing, Body

Correspondence

Kong, Byung Hy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8
Fax: 82-62-230-6329
E-mail: Bhgong@chosun.ac.kr

투 고 일: 2012년 12월 17일
수 정 일: 2013년 1월 9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9일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fundamental ontological understanding of caring and inquiring into the possibility of a caring practice in nursing based on existential phenomenology. **Methods:** According to Heidegger's existential phenomenology, caring has been interpreted as a fundamental ontological basis for caring practice in nursing. Further, based o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the meaning of the lived experience of illness and the way of caring practice have been described from the aspect of the existential involvement in the embodied life world. **Results:** Heidegger's phenomenology provided ontological thinking about caring, which is understood in a basic way as the possibility of human existence and dwelling in oneself in the confrontation of the illness experience.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fered a meaning of human existence according to bodily intention and situated freedom in the life world. This perspective of embodiment enables nurses to understand bodily experiences of patients and recovery of their bodily capacity in responding to the situation in caring practice. **Conclusion:** Existential phenomenology gives insight into fundamental reflection for caring attitude and practice in nursing.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nursing research can provide descriptions and meaning of the lived experience of illness and a way of coping with the crisis of human existence in caring practi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인간 삶에서 돌봄의 현상을 전문적 직업적 실천으로서의 돌봄 이전에 모든 인간이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Heidegger (1984)는 자신의 저서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돌봄(*Sorge, cura*)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현존재의 특징으로서 본래의 자기를 이해

하는 인간 실존의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인간 본성에 대한 해석에서 찾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돌봄(염려, *Sorge*)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고유의 본성을 완성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 돌봄의 과제란 바로 이 세계에 던져진 유한한 존재에게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에 있다(Heidegger, 1984). 이러한 돌봄의 이해는 이 세상에 던져진 결국 병들고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위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돌보며 사는가에 대한 인간

실존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실존의 가능근거로서 돌봄에 대한 이해는 간호에서의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론적 사유와 실천을 위한 기반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돌보는 자는 인간의 질병이나 상실, 상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체험을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인간 삶의 실존적 과정 속에서 이해하여 전문적 돌봄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Benner를 비롯한 간호학자들은 Heidegger나 Merleau-Ponty의 실존적 현상학에 기초하여 자기 돌봄이 일어나는 생활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질병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현상에 대해 탐구하였다(Benner & Wrubel, 1989; Chan, 2005; Crotty, 1996; Kong, 2009; Madjar & Walton, 1999; Parker, 1999). 거기서 Heidegger의 실존적 현상학은 인간실존의 가능성으로 돌봄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며, Merleau-Ponty의 현상학은 인간의 몸이 거주하고 참여하는 생활세계 속에서 각각의 상황에 처한 자기 삶의 실존적 의미를 이해하여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들의 실존적 현상학은 인간의 건강과 병환,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체험연구를 함에 있어서 질병체험의 의미를 자기를 돌보는 인간 삶의 실존적 과정 속에서 이해하여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건강 전문가들에게 질병체험이 관계하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돌봄의 실천이 인간 삶의 실존적 의미와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Manen, 1999). 이것은 곧 실존적 현상학이 간호에서의 돌봄의 현상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여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로서 탐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간호에서의 현상학적 체험연구들은 Heidegger의 실존적 현상학이 인간 현존재의 특징으로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떻게 인간 실존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에서의 진정한 돌봄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탐색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Merleau-Ponty의 현상학이 환자를 돌보는 건강전문가들에게 질병체험으로 인해 실존적 삶의 곤경에 처한 인간 상황을 이해하여, 그 상황의 요구에 적합한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 어떠한 이론적 관점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인간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론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간호 실무에서의 돌봄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하지를 Heidegger와 Merleau-Ponty의 실존적 현상학에 기초하여 탐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Heidegger의 인간 현존재의 존재론적 사유에 기초하여 돌봄의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에서의 돌봄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에 기초하여 세계에로 향한 인간의 신체적 지향성과 상황적 자유가 지닌 인간 실존의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래서 그의 몸의 현상학이 임상 현장에서의 질병 체험의 실존적 의미를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 어떠한 관점과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 탐구해 보기로 한다.

본 론

1. 하이데거의 돌봄에 대한 사유와 실천

1) 돌봄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와 거주

인간현존재의 방식으로서의 '돌봄'에 대한 사유는 특히 Heidegger의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서 죽을 자로서(der Sterbliche) 대지위에 거주하는 인간 현존재의 특징은 돌봄(Sorge, 염려)이다(Kang, 2002). 돌봄이란 무엇을 자신의 본질 속에 있게 하고, 무엇을 자신의 본질 안으로 되돌려 감추게 하고 그것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Heidegger(1984)는 자신의 저서인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인간 현존재의 특징으로서 돌봄을 '내 존재'(In-sein)의 어원을 통해 밝히고 있다. '내-존재'(In-sein)는 '거주하다' '체류하다'의 의미를 지닌 'in'과 '의숙하다', '신뢰하다' '친숙하다'의 의미를 지닌 'an'이 결합된 'inan'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어원적 의미는 인간현존재의 특징이 인간 자신에게 맡겨진 존재를 지키고, 신뢰하고, 존재가까이서 체류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돌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돌봄의 사유는 자기 본질 안에 머무는 자기 실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에워싸는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발생하는 '터'(Ort)에 '거주함'(Wohnen)에 대한 하이데거의 후기의 사유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이 자신의 '터'에서 자신과 주위세계와 타인을 돌보며 사는 방식이 '거주함'인 것이다(Heidegger, 1985; Kong, 2010). '터'란 자기 존재의 근원적 진실성이 발생하는 곳이며, 그 터에 거주함이란 자기 삶의 친숙함이 배어 있는 주위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죽음을 향해 다가가며 자기 자신 속에 머무는 방식이다. 지상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간은 "존재의 열린 장 가운데서 대지와 하늘 그리고 신적인 것과 사멸한 자를 가깝게 모아들이는 사물들 결

에 친밀히 거주하면서, 사방 세계를 소중히 아끼고 돌보며, 이러한 사방을 사물들 속으로 참담게 보살피는 자이다”(Heidegger, 1985, p. 146). 따라서 ‘거주함’이란 ‘죽을 자들’로서 인간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대지와 하늘, 신적인 것, 이웃으로서의 죽을 자들’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며, 동시에 삶의 자리를 짓는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서 죽을 자들과 상생하는 상호관계 속에 더불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hin, 2006).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터’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본질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사방세계, 즉 주위 이웃과 사물들, 그리고 대지와 신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사물들 곁에 체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터’에 거주함에 대한 돌봄의 사유는 ‘죽을 자’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에워싸는 이 세계와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Heidegger의 돌봄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는 간호에 있어서 인간 돌봄의 태도와 실천을 위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해 준다. 돌봄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본질 속에 있게 하고, 그것을 본질 안으로 되돌려 간직하게 하고, 그것을 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거주함’으로서의 돌봄의 태도는 사물에 대한 시적 태도로서 ‘머무름’, ‘참고 견담’, ‘기다림’, ‘물러남’, ‘그대로 둠’의 용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돌봄의 존재론적 사유와 태도는 과학적 기술적 사유에 의존하여 질병의 치료와 처치 중심의 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오늘날 특히 첨단 의료장비와 관료화된 의료 환경에서의 이루어지는 간호행위는 보호하고 지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돌볼 수 있는 친숙한 거주 환경과는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Heidegger의 ‘터’에 거주함에 대한 돌봄의 사유는 실존적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돌봄의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 참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짓도록 돌보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 ‘터’에 거주함은 자신의 삶의 친숙함이 배어있는 주위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 속에 체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친숙한 사방세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중환자실 환경에서 경험하는 공포와 불안은 환자에게는 자기 거주를 잃어버린 실존적 위기의 체험인 것이다(Benner & Wrubel, 1989). 특히 자기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은 죽음에 다가가는 노인이나 암 말기 환자에게 자기 삶의 역사가 배어있는 처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주위 사물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죽을 자들이 미래를 기다리며 자신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Kong, 2010).

2) 돌봄의 실천과 타인에 대한 배려

위에서 기술된 자기 자신의 진실성에 머물며 자신의 ‘터’에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Heidegger의 돌봄의 사유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실천적 관점으로 나아간다. 우선 Heidegger는 인간 현존재의 의미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에워싸는 세계와 타인과의 돌봄(Sorge)라는 관계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자기 존재의 의미는 자기의 고유한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보살피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돌보는 인간은 항상 이미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주위세계를 둘러보며, 관심을 쏟고 사물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때의 주위세계는 인식의 대상처럼 실체성, 물질성을 지닌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적합성, 유용성에 의해 규정되는 그 자체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것을 Heidegger (1984)는 ‘도구’(Zeug)라고 부른다. 그는 이론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인식과 관계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세상과의 관계를 ‘손앞에 있음’(Vorhandensein)이라고 칭하는 반면에, 자신을 에워싸는 사물들에게 관심을 쏟고 사용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손안에 있음’(Zuhandensein)이라 부른다(Ha, 2009). 예를 들어 농부가 신고 있는 신발이나 간호사의 주사기나, 장님의 지팡이, 즐겨 앉는 의자, 집 앞의 나무 등은 현존재가 그때 상황마다 사물을 사용함(Besorgen)으로 인해 도구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현존재가 주위 세계와 맺는 도구적 관계란 모든 인식과 경험에 이미 앞서서 ‘세계내 존재’로서 세상과의 친숙한 근원적인 관계이다. 즉 인간 현존재는 이미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들에 둘러 싸여 있는 친숙한 세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계란 단지 눈앞의 사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무엇을 하기 위해 미래에 열려져 있는 도구의 가능성을 지닌 문화적 사회적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적 세계에 속해 있는 현존재는 그때 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규정되며, 언제나 과거로부터 미래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계획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니는 문화적 세계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Ha, 2009).

이렇듯 인간 현존재는 도구적 세계에 둘러싸여 타자와 ‘함께 있음’(Mit-sein)으로써 타인을 배려(Fuersorge)하는 공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공동의 세계 속에서 타인과 ‘함께 있음’이란 타인을 배려하는 관계로서 표현된다. 타인을 배려하는 형태에는 사랑에서 희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경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특히 하이데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긍정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양태에 대해 주목한다. 첫번째 배려는 타인의 염려(Sorge)를 빼앗아 버려 그를 위해서 염려를 떠맡는 방식이다. 이러한 염려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염려와 짐을 자기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타인은 의존적이며 암

목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두번째 배려는 타인을 위해서 대신 나서기 보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실존의 가능성을 스스로 열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타인에게 염려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존재의 가능성으로 앞서 나가서 그에게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열어주는 배려”인 것이다(Heidegger, 1984). 이러한 배려는 본래의 자신에 대한 염려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투명해지고 그의 염려로부터 자유롭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첫번째는 타인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배려인 반면에, 두번째는 본래의 자기 자신에 관심을 통해 자기 스스로 돌보도록 하는 염려인 것이다. Heidegger (1984)는 공동세계(생활세계)에서 함께 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는 바로 타자에 대한 고려와 관용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능성을 자유롭게 열어준다고 말한다. 여기서 배려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도구적 세계로서 신뢰하고, 그 세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타인에게 자기 돌봄의 자유를 지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 현존재의 특성으로서 주위세계와 타자에 대한 돌봄은 간호에서의 돌봄의 실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Benner와 Wrubel (1989)은 ‘자신을 해석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속한 세계의 문화적 배경의 의미를 Heidegger가 말한 세계와의 도구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간호에서 돌봄의 실천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주위세계가 문화적 배경의 의미로 둘러싸인 친숙한 생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간호사는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의 가능성에 둘러싸인 친숙한 환경 속에서 각각의 상황에 처한 환자에 대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Benner와 Wrubel (1989)은 하이데거의 ‘손안에 있는’(ready to hand)이란 용어를 이론에 우선하여 상황에 적합한 실무를 하기 위한 간호에서의 실천적 지식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였다. 여기서 실천적 지식이란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숙련된 돌봄의 기술과 관계한다. 이것은 이론적 지식이나 규칙 등의 방법적 절차에 따라 상황마다 응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 속에서 숙련되고 친숙해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황적 지식인 것이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이나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도구로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둘러싸인 익숙한 환경 속에서 환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여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의 실천은 또한 환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세계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며 초연하며 무관심한 사람은 그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상황에 익숙한 사람은 그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숙련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Benner & Wrubel, 1989). 간호사는 환자가 처한 전체적 상황의 의미를 이

해함으로서, 상황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환자에게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친숙한 느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상황 속에 있다’는 감각의 회복은 바로 인간이 세계 속에서 주위사물들과의 친숙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관계한다. 이러한 돌봄은 바로 낯선 ‘상황 밖’에 처한 환자에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숙한 생활세계에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개복심장수술과 대수술과정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주 상황에서 벗어나 있음을 느낀다. 지혜로운 회복실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억제대, 튜브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전달하며 상황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통은 개인적 삶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도구적 존재’로 둘러싸인 상황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타인을 위한 돌봄을 실천 할 수 있는가. 앞서 Heidegger가 제시한 타인에 대한 배려의 두가지 유형에 따라 Benner와 Wrubel (1989)은 간호에서의 돌봄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 사람의 자기 돌봄의 자유 능력을 빼앗아 의존적으로 만드는 유형이며, 다른 유형은 본래적인 염려(Sorge)를 되돌려 줌으로써 자기 돌봄 속에서 자신의 실존의 가능성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여기서 진정한 배려는 타인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지배하는 배려가 아니라, 자기 이해를 통해 미래를 향해 스스로 자기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인 것이다. 진정한 돌봄이란 특히 병환으로 인해 개인의 실존적 근경상태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이해를 통한 실존의 가능성을 옹호(advocacy)해주고, 촉진(facilitation)시켜 주는 것이다(Benner & Wrubel, 1989).

이러한 Heidegger의 실존적 돌봄에 대한 이해는 간호에서의 돌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유산의 경험으로 고통 받은 여성들이 원하는 돌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다음의 다섯가지 실존적 돌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아기를 상실한 유산의 경험이 자신에게 고유한 것임을 “아는 것”이며, 둘째, 그 상황에 참여하여 그 여성과 “함께 있음”, 셋째, 안위나 지지적인 수단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녀를 위해 “행위 하는 것”이며, 넷째, 상실에 대한 슬픔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섯째, 그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이다(Benner & Wrubel, 1989). 이러한 돌봄의 실천은 자기 체험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존적 옹호자와 촉진자 역할을 보여준다. 실존적 돌봄이란 유산의 경험으로 인한 상실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와 함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위로와

안위제공은 자기 슬픔을 스스로 이해하게 하여 미래의 가능성, 즉 출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돌봄인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돌봄의 실천이란 환자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스스로 주위세계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존적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과 돌봄의 실천

1) 인간의 몸 습관과 질병체험의 의미

인간 돌봄은 신체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세계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신체적 주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은 돌봄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 스트레스, 노화, 질병에 의한 신체적 체험을 실존적인 삶의 체험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Madjar & Walton, 1999). 또한 간호연구자들은 그의 몸의 현상학에 근거하여 임상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돌봄의 경험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면 우선 간호연구자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Merleau-Ponty의 주체로서 몸의 실존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Merleau-Ponty (2002)는 자신의 저서인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에서 몸을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육화된 의식으로서 지향적 작용을 하며 주위환경인 세계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체험의 주체로서 이해한다. 여기서 세계란 몸과 연결된 총체적인 환경으로서 지각적 경험의 지평을 의미한다. 그는 우선 몸이 주위세계와 소통을 하기위해서 공감각에 의한 지각의 종합이 어떻게 일어나며 몸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지 기술하기위해서 몸 도식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는다. 여기서 몸 도식(body image)이란 우리가 세계를 향해 교감하고 행위를 할 때, 특정한 질서로 구조화된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 취하게 되는 몸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몸 도식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경험이 서로 통일되어 지각의 장의 지평을 형성하며 동시에 공간을 확보하는 몸의 상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람마다 세계와 관계하는 몸의 도식이 다르게 되면, 이에 따른 지각적 체험의 지형이나 몸의 상황은 특정한 방식으로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몸 도식이란 세계와 소통하고 행위 할 수 있는 기반이며, 우리가 “자기 실천적 과제를 맞이하는 몸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Merleau-Ponty, 2002).

우리의 몸은 몸 도식에 따라 반복된 행위를 하게 되면 몸 습관을 지니게 된다. 몸 습관에 따라 우리의 몸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 전체를 모아서 목표를 향해 운동을 한다(Merleau-Ponty, 2002). 몸이 새로운 습관을

지닌다는 것은 몸이 세계 내의 목적을 향해 자신을 수렴시키고 운동해가는 또 다른 방식들을 계속해서 습득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습관은 우리의 의식의 배후에서 우리를 ‘세계로 열린 존재’로 확장시켜나가며 변화시키는 능력이다(Han, 2006).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자신의 몸 안에 상황을 구조할 수 있는 습관적인 몸이 있으며, 아직 몸 도식이 형성되지 않은 현재의 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의 현재의 몸은 과거의 습관적인 몸이 지닌 다리의 환영을 가지고 세상과의 교섭을 하려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러면 그 현재의 몸은 상황과 교섭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의 습관을 습득해야 한다. 이렇듯 몸과 세계와의 관계는 몸의 습관에 따라 세계가 구조화되거나, 혹은 새로운 몸이 상황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몸 습관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몸은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몸의 존재능력을 확장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지를 절단한 환자가 신고 다니는 의족은 세상을 향한 나의 몸의 일부분으로 존재능력이 확장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자신이 존재능력을 세계어로 확장시키기 위해 몸의 습관을 습득하고, 또한 자신의 몸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를 매개로 하여 그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skill)을 지닌다. 이러한 나의 몸 습관에 의해서 사물과 세계의 상황이 내 몸의 부분들로 나와 함께 주어진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잘 맞는 익숙한 구두는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주변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며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 습관을 지닌다는 것은 몸을 통해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 속에 참여하고 세계의 사물과 소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Kong, 2006).

지금까지 Merleau-Ponty의 몸 습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세계에 참여하는 몸의 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몸의 이해는 질병이나 상해 그리고 노화 등에 대한 체험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존적 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게 한다. 특히 간호에서의 환자의 질병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고통 받는 이의 관점에서 이들의 몸의 근경상태가 삶의 실존적 위기의 경험임을 보여주며, 이들의 몸의 회복을 위한 돌봄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Madjar, 1998; Mannen, 1999). 따라서 환자의 질병체험에 대한 기술은 세계어로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가는 몸의 능력이 어떻게 장애를 받으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우선 Merleau-Ponty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기초하여 뇌졸중 환자의 회복 경험을 연구한 간호연구의 사례를 살펴보자(Doolittle, 1994).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회복을 위해서 그의 익숙해진 문화적, 습관적 신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재활시설에서 치료는 일상 활동의 신체적 기능적 행위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습관을 지닌 몸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재활시설에게 운동치료가 처방한 신체적 기능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사회적 문화적인 몸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뇌졸중 이전의 환자의 몸 습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왼팔과 손의 힘과 조질력이 손상된 환자는 뇌졸중 경험 이전에 그는 열광적인 낚시꾼이었다. 그에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은 신체적, 사회적인 몸의 회복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낚시는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투사하는 신체, 즉 사회적인 습관적 신체의 회복을 위한 중심훈련인 것이다(Doolittle, 1994).

특히 뇌졸중 환자의 회복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들은 인간의 습관적 몸이 상황의 요청에 이끌려 반응하게 되면 몸의 자발적인 통합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우리의 몸에 친숙한 환경은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육화된 의미들로 가득 차 있어서 몸의 기억을 일깨우고 반응하도록 이끈다. 우리의 몸은 상황에 속하여 상황과 함께 공동의 의미를 엮어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낯선 환경에 처하면 동요를 겪게 되지만, 자신이 오랜 세월 몸담고 살아왔던 친숙한 거처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몸 습관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다(Doolittle, 1994). 여기서 현상학적 체험연구들은 뇌졸중 환자의 몸의 재활과정이란 단순히 신경학적인 신체적 운동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 속에 육화된 문화적인 습관적 몸으로 회복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환자실 환자의 몸에 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들은 중환자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갇혀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몸, '상황 없음'을 경험하는 환자의 몸의 체험이 곧 인간 실존의 붕괴임을 보여준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자신들 몸에 부착된 기기들이나 감시 장치,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신체의 침습 절차로 인한 철저히 낯선 상황에 갇혀버린 이 세상에서 이탈된 무력한 몸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의료인이나 가족들의 표정, 발성, 역양 등은 친숙한 세상으로 향한 환자의 몸의 기억을 일깨우며, 특히 가족들의 친숙한 손길과 목소리 등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몸의 지각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Parker, 1999).

위의 현상학적 체험 연구들은 습관적이고 숙련된 신체의 능력이 재활치료나 중환자실에 있어서 상황에 참여하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잠재력으로 탐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건강전문가들은 만성질환과 함께 살아가며 습관적이며 숙련된 신체를 개발해 온 환자들로부터 신체의 존재론적 능력의 학

장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성 당뇨병환자는 혈당수준에 따라 반응하는 신체적 지각을 잃어서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몸 습관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오랜 기간의 만성질환 체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습관적이며 숙련된 신체의 체험을 존중하고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는 임상적 발견과 탐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의족을 착용했을 때의 경험에 대한 기술이다:

“이 유령다리는 때로는 지옥같이 고통스럽다. 뒤통치가 뒤틀리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것은 밤에 악화되거나 의족을 벗었을 때, 혹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의족을 신고 걸었을 때 사라진다. 나는 아직도 생생한 다리를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훌륭한 환각이다. 이것은 의족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나를 걷게 한다”(Benner & Wrubel, 1989, p. 66).

위의 사례에서 다리를 절단한 환자가 의족을 벗었을 때 경험하는 환각지라는 고통의 체험은 절단당하기 이전의 습관적 다리의 환영이 실제로 걷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의족을 착용하게 되면, 습관적인 다리의 경험이 의족으로 살아나서 실제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듯 신체적 지향성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은 육화된 습관적 문화적 의미에 반응하며 행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의 확장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Benner & Wrubel, 1989).

2) 몸의 자유와 돌봄의 실천

Merleau-Ponty의 몸의 습관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암묵적 지식이며, 세계에 대해 상징적으로 객관화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의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서 실천적 지식이란 논리적 추론과정에 의한 명제적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암묵적 지식인 것이다(Edwards, 2001). 몸 습관은 인간의 의식적인 실천적 행동의 근거이며, 몸의 지각과 숙련된 행동이 상호 결합하여 상황에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Dreyfus & Dreyfus, 1999). 몸의 자유란 몸 습관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지각과 운동능력을 우리의 실천적 의식과 결합시켜 상황을 맞이하는 몸의 실존적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정신과 욕망, 지각, 운동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결합하여 실천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적인 목적이 없이도 몸으로 지각된 상황의 요청에 따라 행동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몸의 실천적 기술이란 우리의 몸의 지각에 가해지는 상황과 사물의 요청에 따라 우리의 실천적인 의식을 숙련된 몸의 운동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때

인간의 몸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최대 파악을 획득하려는 지향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바로 몸의 지각과 운동능력을 매개로 하여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몸의 자유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전체로서 가장 최적의 거리를 발견하여 최적의 거리를 취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가장 최적 방식으로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다(Merleau-Ponty, 2002). 상황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사물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할수록 더욱 상황에 예민하고 차별적으로 반응하여 각 각의 상황마다 적합한 행위를 하려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다. 여기서 상황을 맞이하는 몸의 자유란 목적에 따른 의식적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풍부한 경험에 따른 최대파악을 향한 몸의 지향성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결국 몸의 각각의 상황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습득한 최대파악을 향한 몸의 지향성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지고 정련되어진다(Dreyfus & Dreyfus, 1999).

그러면 Merleau-Ponty의 상황을 맞이하는 몸의 실존적 자유능력은 바로 간호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는가? 간호 실무에 대한 현상적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각 각의 상황에 대처하는 몸의 숙련된 기술에 따른 실천적 지혜를 보여준다(Chan, 2005). 간호사들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숙련된 자연적 몸을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거기서 간호사의 습관적이며 문화적인 몸은 각각의 임상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숙련된 투사된 몸인 것이다(Benner, 2000).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환자가 처한 상황이 요구하는 과제를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몸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 신참자로서 임상상황을 처음 접하는 간호사는 그 상황에 맞는 몸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론적으로 습득한 간호원칙과 규칙에 따라 사고하여 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수행하는 몸은 그 상황에 대해 낯설기만 한 것이다(Kong, 2006). 그들은 임상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몸의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경험을 통해 지각적 판단력과 몸의 숙련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환자가 처한 임상 상황에 익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몸을 지닌 간호사는 자신의 과제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임중환자의 상황을 익숙하게 맞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상황을 맞이하여 환자를 다룰 수 있는 몸의 습관이 돌봄의 숙련된 기술로서 체현되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다(Chan, 2005).

이렇듯 경력간호사는 몸의 습관을 토대로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실천적 의지를 몸의 지각과 운동능력과 자유롭게 결합시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들은 지각된 상황의 요청에 가장 적합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몸의 지향성에 의해서 숙련된

행위로 나아간다. 간호실무의 전문성의 특성은 바로 몸으로 지각하여 판별한 임상상황의 요청을 간파하여 환자를 돌보고자하는 실천적 의지를 몸의 지각과 운동능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임상상황의 요구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임상실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초보자에서 전문가의 단계로 나아갈수록 임상상황마다 대처하는 간호사의 체화된 돌봄의 특징을 1) 임상적 파악과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실무, 2) 체화된 노하우, 3) 큰 그림을 봄, 4) 예기치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기술하고 있다(Dreyfus, Dreyfus, & Benner, 2006).

그리고 Merleau-Ponty의 몸의 지향성이 맞이하는 상황이란 "물리적, 인간적 관계 그리고 도덕적 상황"을 포괄하는 관계적 상황이다(Merleau-Ponty, 2002). 여기서 도덕적 상황은 이미 지각과 더불어 자신과 얽혀 있는 인간과 타자 그리고 세계 사이에 상호적으로 존재한다. 간호사의 몸이 맞이하는 임상 상황은 인간관계 속의 취약한 존재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이에 반응해야 하는 도덕적 상황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Kong, 2006). 간호가 요구되는 임상적 상황이란 매 순간 상처받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가 처해 있는 인간적 도덕적 상황이며,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간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응답해야 하는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는 돌봄을 실천한다. 이러한 몸의 도덕적 감수성은 임상상황을 받아들이는 간호사의 임상적 파악과 함께 일어난다. 간호사의 임상적 파악은 그 상황을 맞이하는 몸의 도덕적 감수성을 통해서 일어나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실존적 돌봄이 실천될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Heidegger와 Merleau-Ponty의 실존적 현상학이 간호에서 돌봄에 대한 사유와 태도 그리고 실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Heidegger의 돌봄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는 과학적 기술적 사유에 의존하여 질병의 치료와 처치 중심의 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에 머물고, 보호하고, 지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진정한 돌봄의 근원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특히 Heidegger의 자신의 '타'에 거주함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자기 실존적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자기 삶의 친숙함이 배어있는 처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사물들을 배려하며 자기 자신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돌봄의 태도와 관계한다. 여기서 Heidegger의 주위세계에 관심을 쏟고 타인을 배려하는 돌봄의 사유는 바로 도구적 가능성으로 둘러싸인 친숙한 세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돌봄의 실존적 자유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은 세계와의 관계의 끈을 잃어버린 환자에게 자

신의 '타'인 생활세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기 돌봄의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것이다.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에 근거한 질병이나 상해 그리고 노화 등에 대한 체험연구는 세계에로 향한 몸의 존재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존적 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게 한다. 이것은 고통 받는 이의 관점에서 이들의 몸의 곤경상태가 삶의 실존적 위기의 경험임을 보여주며, 상황적 자유 능력의 기반인 몸 습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Merleau-Ponty의 몸의 지향성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는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적 돌봄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드러내 준다. 거기서 현상학적 기술은 각각의 임상 상황마다 요구되는 몸의 지각에 따라 큰 그림을 보고 상황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간호사의 숙련된 몸의 기술이 전문적 돌봄의 특징임을 보여준다. 즉 탁월한 간호사의 전문적 돌봄은 임상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몸의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황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Merleau-Ponty의 상황에 대처하는 몸의 지향성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은 임상적, 도덕적 상황까지 포괄하는 인간관계 상황의 요구를 지각하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돌봄의 실천을 이해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본성을 완성해 준다는 인간 실존 가능성으로의 하이데거의 돌봄에 대한 통찰을 통해 과학적 사유와 기술적 실천이 지배하는 의료현장에서 진정한 돌봄의 근원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간 돌봄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하여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에 대한 탐구는 특히 건강 전문가들에게 주체로서의 몸의 곤경상태가 곧 실존적 삶의 위기임을 이해하게 하며,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전문적 돌봄의 실천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탐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려 된다.

REFERENCES

- Benner, P. (2000). The role of embodiment, emotion and life world for rationality and agency in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1, 5-19.
- Benner, P., & Wrubel, J. (1989).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Chan, G. K. (2005). Understanding end life caring practic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Developing Merleau-Ponty's notion of intentional arc and maximum grip through praxis and phronesis. *Nursing Philosophy*, 6, 19-32.
- Crotty, M.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Melbourne: Churchill Livingstone.
- Doolittle, N. D. (1994). A clinical ethnography of stroke recovery. In P. Benner (Ed.), *Interpretive phenomenology*. Thousand Oaks, London & New Delhi: Sage.
- Dreyfus, H. L., Dreyfus, S. E., & Benner, P. (1996). Implication of phenomenology of expertise for teaching and learning everyday skillful ethical comportment. In P. Benner, C. A. Tanner, & C. A. Chesla (Eds.), *Expertise in nursing practice* (pp. 258-279). New York, NY: Springer.
- Dreyfus, H., & Dreyfus, S. E. (1999). The challenge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embodiment for cognitive science. In G. Weiss & H. F. Haber (Eds.), *Perspective of embodiment: The intersections of nature and culture* (pp. 103-120). New York & London: Routledge.
-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London: Palgrave.
- Ha, P. (2009). Heidegger and problem of science of history.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40, 302-322.
- Han, J. S. (2006). On habit and habitual knowledge: A dialogue between Merleau-Ponty and neuroscience,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9, 1-26.
- Heidegger, M. (1985). *Vortraege und Aufsaeetze*. Pfullingen: Verlag Guenther Neske.
- Heidegger, M. (1984). *Sein und zeit*. Tuebingen: Max Niemeyer.
- Kang, H. S. (2002). Phenomenological ontological thinking about Heidegger's caring.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17, 142-175.
- Kong, B. H. (2010). Caring for elderly people in Korean society. *Korean Feminist philosophy*, 13, 2-22.
- Kong, B. H. (2009).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body and the experience of illness in nursing.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40, 58-81.
- Kong, B. H. (2006).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body and practical knowledge in nursing.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31, 86-111.
- Madjar, I. & Walton, J. (1999). Phenomenology and nursing. In I. Madjar & J. Walton (Eds.), *Nursing the experience of Illness, phenomenology on practice* (pp. 1-16).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djar, I. (1998). *Giving comfort and inflicting pain*. Edmonton, Alberta: Qual Institute Press.
- Manen, M. (1999). The pathic nature of inquiry and nursing. In I. Madjar & J. Walton (Eds.), *Nursing and the experience of illness, phenomenology in practice* (pp. 17-35).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erleau-Ponty (200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arker, V. (1999). On confronting life and death. In I. Madjar & J. Walton (Eds.), *Nursing and the experience of illness, phenomenology on practice* (pp. 57-76). London: Routledge.
- Shin, S. H. (2006). Das wohnen im weltgevierte Heideggers.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9, 62-87.